

뜻하다. 나는 한物件에 지나지 않는다고는 생覺하고 심지어 안는다. 그럼으로 나는 大地의 自然을 向하여 一種의 生命의 神祕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善惡을 分別치 않고 一切을 낚고 一切을 積戔한 大地은 人類愛의 源泉이 된 것이다. 生命있는 곳에서 生命있는 것을 나으니 母性愛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大地의 自然에 生을 받은 나는 참으로 大地愛를 느끼기에 마음뜻形容할 수 없는 神祕를 느낀다. 一切에 對하여 絕對愛의 眼光을 주는 大地야 말로 無抵抗主義者이요 超越者라 하지 않을 수 없다.

大地은 如何한 境遇라도 怒憎업시 默々히 忍從의 生活을 繼續한다. 그러나 佛陀의 大慈大悲心으로 一切衆生을 擁護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母性愛를 擁護하여 淨化시키는 것이 自我를 空으로 한 大地의 愛일 것이다. 이 大地의 愛 永遠히 불과 가차 地上에 넘쳐흐른다. 母性愛은 勿論이요 救愛 人類愛 人間愛 一切에 對하여 發源할 것이다.

地上에 흐르는 愛속에서 난들은 光明있는 愛를 爲하여 살지 않을 수 없다. 曙光이 있는 大地은 愛의 結晶인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幸福의 滿足을 느끼는 愛를 基礎로 할 것이다. 우리가 참으로 愛를 어땀다 할 때는 自己를 超越하여 永遠

의 結合을 어땀 것이다.

大地에 넘쳐흐르는 愛라도 참으로 求하려면 容易한 것이 아니다. 사람의 말은 부드러우나 사랑하기는 어렵다. 이 는 누구라도 苦感을 느끼는 것이다.

萬苦 苦感을 느끼지 않고 愛를 어땀다는 사람이 있스면 그는 稀有한 大德이요 그러치 않으면 僞善者일 것이다.

보아라 佛陀의 大慈大悲心의 愛은 人類를 爲하여 印度 度雪山에 入하여 六年 苦行한 곳에서 얻은 것이요 基督의 博愛은 人類를 爲하여 十字架에 못박힌 데서 얻은 것이요 土耳其의 民族의 國家愛는 惡戰苦闘하여 獨立한 데서 나타난 것이요 有島武郎 波多野秋子 兩人的 戀愛은 至上主義의 愛은 먼저 어려운 生命을 얻은 곳에서 나타난 것이요 安인가 모든 至上의 愛는 愛가 이리 커 어려운 것이다. 이 至上의 愛를 爲하여 살며 하는 사람은 嚴格한 大地의 自然을 向하여 默々히 生覺하라 그러면 말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이 僞善이 아니면 참다운 愛일 것이다.

至上 愛은 佛性과 同치 宇宙에 充滿하였으나 人間이란 어떤 表現할 수 없다. 故로 우리는 人間사이에서 至上 愛의 表現을 認識할 수 있다. 釋尊이 入寂할 때 모든 動物이 其枕邊에 모여서 그

寂을 슬퍼하며 歎息하였다 함은 釋尊의 人格에 넘쳐흐른 愛力이요 伊太利聖者 후란시스가 野邊에 나가 春光과 갖춰 앉았던 마음 小川에 흥을 갖춰 清雅한 音聲으로 自然을讚美할 때에 날아가는 새라도 無心히 귀를 기울여 드렸다 함도 후란시스의 참다운 愛의 表現일 것이다.

이런 愛야 말로 모든 것을 드러내어 아아 하며 모든 것을 빛추워 빛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참으로 永遠히 살며 하면 참다운 愛을 드러내는 永遠의 生命을 求할 수 있을 것이다.

戊辰回顧

金 再 榮

本題를 말하기 前에 筆者의 經歷一片을 既知未知의 諸君子의 告하든다. 十歲頃에 海印法刹에 入山한 後로 前緣이 薄雜한 所爲인지 十六歲에 偶然히 海外로 流零되야 支那上海港과 日本諸島로 浮遊海洋하여

放浪한 船員生活을 無意識의 因窮히 保命하다 가 보니 齡이 於焉間에 三十이라. 淺學短智을 長嘆嗚息이나 醫藥으로 療養치 못하고 雜誌의 卷을 買集하여 皮相의 智와 學을 맛만 보고 滿腹이 되도 是修得지 못한 漆桶之資格이

至上 愛은 佛性과 同치 善惡의 分別업시 極致에 至하여 永遠의 生命을 가진 것이다. 이 永遠의 生命으로 볼 때 그 愛의 根가 眞스면 底砂上의 樓閣이라 한다.

그러나 至上 愛은 時間空間을 通한 健劫의 生命이요 그리고 愛은 智慧와 方法을 나이며 熱情과 意志를 나는다. 此意味에서 愛의 價値를 體得할 수 있을 것이다. 二月十五日夜

魚魯之 薄識을 가지고 戊辰年回顧에 對하여 무엇이 라고 執筆한다 함은 至極不當한 일인 줄 切感하든다. 다만은 是인 그대로 生의 躍動에서 一 물네바퀴를 匹々도리가는 地球는 戊辰一年도 그만 廻轉하고 己巳年이라는 新軌道로 바뀔을 기다려 運轉을 비록하였다. 波瀾重疊한 戊辰年이 世界의 으로 무는 痕跡을 남겼느냐? 日本은 所謂政治上 普通選舉를 戊辰君이 産